

수줍음이 친구관계 질의 하위 요인을 매개로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 초등학교 5, 6학년 남녀를 중심으로*

황정은** · 이기학***

초 록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줍음이 친구관계 질의 하위 요인을 매개로 하여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서울에 소재한 두 초등학교의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409개(남: 199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아의 경우 친구관계 질의 정서적 안정/도움/인정이 수줍음과 외로움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였고, 여아의 경우 정서적 안정/도움/인정 요인과 교제의 즐거움 요인이 수줍음과 외로움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였다. 이는 수줍은 아동이 지각할 수 있는 외로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친구와의 상호작용 양상을 고려해야 하며,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주제어 : 수줍음, 외로움, 친구관계의 질

* 본 연구는 BK21 지원 사업에 의해 수행됨.

**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신저자, khlee2445@yonsei.ac.kr

I. 서 론

외로움은 한 개인이 기대하는 대인관계와 현재 지각된 관계가 불일치할 때 느끼는 부정적인(aversive) 감정 상태로서(Peplau & Perlman, 1982), 개인의 사회적 관계의 불만족을 의미한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만성적인 외로움은 우울, 자살 사고 및 시도, 학교 중퇴 등과 관련이 있으므로(Asher & Paquette, 2003; Heinrich & Gullone, 2006), 아동과 청소년기의 외로움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파악하여, 외로움을 감소시키기 위한 개입과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수줍음은 아동의 외로움과 관련하여 연구되어 온 대표적인 성격적 변인이다(Heinrich & Gullone, 2006; Jackson, Soderlind, & Weiss, 2000).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서의 긴장, 불안, 위축된 행동의 징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는 수줍음은 관계 속에서의 결핍감과 불만족을 나타내는 외로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도현심, 1996; Jackson, Fritch, Nagasaka, & Gunderson, 2002). 하지만, 동양 문화권에서 수줍음이 외로움과 유의한 관련이 없거나 관계의 강도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도 있다(Chen, He, Oliveira, Coco, Zappulla, & Kaspar et al., 2004; Shin, 2006). 이는 동양 문화권에서는 수줍음과 외로움의 관계를 직접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문제일 수 있으며, 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변인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근래에 국내 연구들이 수줍음과 외로움의 관계를 또래관계를 매개로 하여 설명한 바 있다(도현심, 1996; Shin, 2006).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줍음을 많이 타는 아동일수록 반 아이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또래 내에서의 지위가 낮아지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줍음은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상황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외로움도 관계 속에서 지각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줍음이 타인과의 관계 양상에 어떤 영향을 끼침으로써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수줍음과 외로움의 관계를 또래관계를 통해서만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수줍음이 또래관계와 항상 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김근영, 1994; 노혜숙, 1997; Chen, Rubin, & Sun, 1992). 이와 관련하여, 아동의 학교 적응은 또래관계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

어 왔다(이은혜 · 김정윤 · 오원정, 2001).

본 연구는 또래와 친구의 구분된 개념을 바탕으로, 수줍음이 친구관계를 매개로 하여 외로움에 영향을 주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래(peer)는 개인이 속한 그룹 즉, 학급의 구성원들을 지칭하고, 친구(friend)는 자발적으로 상호 간에 선택되어 친밀한 이원적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를 의미한다. 아동은 또래보다 친한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상호작용의 빈도와 강도가 크기 때문에(임수경, 이형실, 2007), 친구로부터 필요한 사회·정서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할 경우, 외로움을 더 크게 느끼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관계의 양적인 측면보다 질적인 측면이 외로움을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오현미, 1999), 이는 친구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근래에는 친밀감, 정서적 지지와 같은 친구관계 질의 특정한 양상이 외로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erndt, 2002; 정유진 · 김광웅, 2006).

친구관계의 질이 아동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중요성에 따라 수줍은 아동의 친구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수줍은 아동이 대체로 친한 친구는 있지만, 친구관계의 질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신유립, 2007; Rubin, Wojslawowicz, Rose-Krasnor, Booth-LaForce, & Burgess, 2006). 따라서, 수줍음의 특성이 친구관계의 질, 즉 친구와의 관계의 패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외로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국내에서 수줍음이 친구관계의 질을 매개로 하여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한 바가 있는데(Shin, 2006), 몇 가지 점에서 보완될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수줍은 아동의 친구관계의 질이 모든 영역에서 낮은 것이 아니라 하위 영역별로 차이가 있었으므로(신유립, 2007; Rubin et al., 2006), 친구관계 질을 하위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친구관계 질의 하위 영역이 남녀에 따라 구조적, 평균적 차이가 존재하므로(Hussong, 2000), 수줍음과 외로움을 매개하는 친구관계 하위 영역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친구관계의 조건인 상호성(Hartup, 1996)을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보다 구체적으로 세 변인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남녀에 따른 차별적이고 효율적인 개입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수줍음이 친구관계 질의 어떤 요인들에 선택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과적으로 외로움에 영향을 주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줍음이 친구관계 질의 하위 요인을 매개로 외로움에 영향을 끼치는 지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수줍음이 친구관계 질의 하위 영역 중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외로움에 영향을 주는 지, 이 경로가 남녀 간에 어떻게 다른 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교 장면에서 수줍은 아동이 지각할 수 있는 외로움을 감소시키고 예방하기 위해, 학교와 교사가 수줍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친구관계 질의 어느 부분을 향상하도록 개입하는 것이 좋을지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수줍음과 외로움

대인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수줍음은 일반적으로 타인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불편감(discomfort)과 행동 억제(inhibition)로 정의될 수 있다(Jones, Briggs, & Smith, 1986). 사람들이 수줍음을 느낄 때 나타나는 특징은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Buss, 1984). 첫째, 행위적 요소로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위축되거나, 최소한의 응답을 한다. 심해질 경우, 손발이 떨리고 몸짓이 어색하고 말을 더듬으며, 사회적 접촉을 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둘째, 정서적 요소로, 외관상 쉽게 관찰되지 않는 불안, 공포, 자의식 등을 의미하며, 호흡, 맥박, 혈압 등의 신체적 반응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세 번째 차원은 인지적 요소이다. 과도한 자의식으로 인한 두려움, 당면한 상황에서 겪게 되는 당황스러움, 앞으로의 사회적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 바보같이 말하고 행동할 것 같은 생각으로 인한 불안과 불편감 등을 포함한다. 수줍음은 상태적 수줍음과 특질적 수줍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태적 수줍음은 타인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등의 특정한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을 말한다. 그리고 특질적 수줍음은 상황에 관계없이 나타나는 기질적인 특성을 말한다(Asendorpf, 1986).

수줍음은 우울, 불안 등의 내재화된 문제, 부정적인 자기개념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다(Rubin et al, 2006). 서구 문화권의 선행 연구들은 수줍음이 외로움과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밝혀 왔다(Fordham & Stevenson-Hinde, 1999; Hymel, Rubin, Rowden, & LeMare, 1990). 서구와 같이 자기표현과 적극성이 중요시되는 문화에서 과묵하고

위축되어 있으며, 자기표현을 잘 하지 않는 수줍은 사람들은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기회를 갖기 더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고립과 정서적 단절감(Weiss, 1973)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한편,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양 문화권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수줍음과 외로움 사이에 관계의 강도가 작거나 유의한 관련이 없음을 밝히기도 하였다(Chen et al., 2004; Shin, 2006). 중국과 국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과묵함, 조심스러움과 같은 수줍음의 행동적 특성이 동양 문화권에서는 부정적으로 여겨지지 않는 경향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수줍음이 아동의 또래/친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이 있음을 고려할 때, 수줍음이 관계적 매개 변인을 통해 외로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시사한다.

2. 친구관계의 질과 외로움

외로움은 사회적 관계의 양적 측면뿐 아니라 질적 측면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sher & Paquette, 2003). 이는 외로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의 유형,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최근에 많은 연구들은 아동의 심리적 적응을 친구관계의 질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오현미, 1999; 이에진, 2008; Bauminger & Kasari, 2000).

친구관계의 질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또래와 친구의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 또래와 친구는 명확히 구분된 개념으로, 또래는 아동이 속한 집단의 구성원들이고, 친구는 아동에 의해 자발적으로 맺어지는 이원적 관계로서 친밀감과 상호성을 특징으로 하며 또래에 비해 상호작용의 빈도와 강도가 더 크다(임수경 · 이형실, 2007). 사춘기 이전 시기의 친구관계의 중요성을 역설한 Sullivan(1953)은 아동이 9-12세가 되면 특정한 동성 또래에게 흥미를 가지게 되고, 이 둘은 친한 친구관계로 발전하게 된다고 하였다. 아동의 친구관계는 사회적 기술 습득, 사회 · 정서적 지원, 안정된 정서 유지, 그리고 자아개념의 발달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Bukowski & Hoza, 1989). 아동은 친구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자신도 친구로부터 정서적 · 물질적 지원 등을 받으며 친밀감의 욕구를 충족한다.

이러한 친구와의 상호작용의 양상이 친구관계의 질이며(Parker & Asher, 1993), 아동의 친구관계는 사회·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즐거움을 제공하며 신뢰감을 형성하게 하는 긍정적 기능과 갈등, 경쟁 등의 부정적 기능으로 구성된다. Parker와 Asher(1993)는 친구관계의 질을 교제와 여가활동, 도움과 안내, 인정과 보살핌, 친밀감, 갈등 해결과 같은 긍정적 기능과 갈등, 배신과 같은 부정적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Bukowski, Hoza, 그리고 Boivin(1994)은 친구관계의 질을 친밀감, 동료애, 안정성과 지원, 갈등의 측면으로 구분하였고, 국내에서는 이은혜와 고윤주(1999)가 정서적 안정, 친밀감, 신뢰, 도움, 인정, 즐거움, 갈등, 경쟁, 그리고 만족감의 9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친구관계의 질은 성별에 따라 구조적, 평균적 차이가 존재한다. 대체로 여아가 남아에 비해 친구관계에서 돌봄/배려, 신뢰, 자기개방을 포함하여 친밀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구조적으로는 남아가 여아에 비해 친구와 같이 시간을 보내는 등의 동료 활동을 통하여 친밀감을 더 표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Hussong, 2000). 또한, 남아가 더 경쟁적인 친구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chmidt-Denter, 1988). 국내 연구에서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친구관계에서 더 많은 사회·정서적 지원을 받고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이은혜·고윤주, 1999).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여아가 친밀감과 정서적 안정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오현미, 1999; 윤미경, 1998). 이와 같은 결과들은 남아와 여아의 친구관계 질을 독립적으로 살펴봐야 함을 의미한다.

친구관계가 긍정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기능을 할 경우에 아동은 외로움을 느낀다(Parker & Asher, 1993).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친구관계에서 친구에 대한 신뢰감이 크고, 갈등을 적게 지각할수록 외로움을 덜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오현미, 1999). 또한, 친구와의 친밀감이 클수록 외로움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아의 경우 정서적 지지를 받는 것, 여아의 경우 교환적 활동을 하는 것이 외로움을 유의하게 감소하였다(정유진·김광웅, 2006).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아동이 친구와 갈등을 많이 경험할수록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6). 또한, 자신을 무시하고 관계를 끝낼 것이라고 위협적으로 말하는 친구를 가진 경우에도 외로움을 더 많이 느꼈다(Crick & Nelson, 2002).

3. 수줍음, 친구관계 질과 외로움

또래관계에서의 문제가 아동의 성향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Younger & Daniels, 1992), 공격성, 위축성 및 수줍음과 같은 개인적 성향이 또래관계와 함께 연구되어 왔다(Fordham & Stevenson-Hinde, 1999; Schwartz, Farver, Chang, & Lee-Shin, 2002). 그러나 아동기 후반에 형성되는 친구관계가 발달에 미치는 중요성으로 인하여(Berndt & Perry, 1986) 최근에는 개인적 성향에 따른 친구관계의 차이를 알아보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Burgess, Wojslawowicz, Rubin, Rose-Krasnor, & Booth-LaForce, 2006; Rubin et al., 2006).

수줍은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친구관계 질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친구관계 질의 하위 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수줍음과 상호 교환적으로 쓰이는 위축된 아동의 친구관계를 비디오로 분석한 연구에서는 위축된 아동이 친구와 있을 때 말을 적게 하고 덜 경쟁적이었다(Schneider, 1999). 또한, 수줍은 아동은 통제집단의 아동에 비해 도움, 친밀감, 갈등 해결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Rubin et al., 2006). 국내 연구에서, 위축적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친구관계에서 지원하기, 동료애, 친밀감이 유의하게 낮았다(신유림, 2007).

선행 연구들을 고찰해볼 때, 수줍은 아동의 친구관계의 질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움, 지원, 친밀감 등 특정한 영역들에서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친구로부터 도움이나 지원을 받고, 친밀감을 느끼는 것은 친구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감정을 표현하는 등의 자기 개방을 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사회·정서적 지원들이다. 그러나 수줍은 아동은 말수가 적고 자기표현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친구관계에서 정서적인 지원이나 실제적인 도움 등을 잘 받지 못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수줍은 아동은 친구관계를 통해 친밀감, 정서적 안정, 도움을 받고자 하는 욕구들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외로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특히, 여아의 수줍음은 친구와 교제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낮출 것이라고 예상된다. 수줍음과 친구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여학생의 수줍음은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애, 2003). 또한, 여아가 남아에 비해 접근 행동을 덜 하며 억제된 행동을 더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도현심·박성연, 1992; Miziad, Boudreault, Thivierge, Caperaa, & Cote, 1984). 이상의

결과들을 보면, 수줍은 여아는 친구와 함께 있거나 놀 때 새롭고 신나는 활동을 덜 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초등학교 때의 아동은 친구와 같은 활동을 하면서 즐거움과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데, 수줍은 여아의 경우 비활동적이거나 관찰자적인 성향으로 인해 교제의 즐거움을 느낄 기회가 적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친구관계에서의 즐거움이 부족하다는 이러한 인식은 외로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된다.

III. 연구문제

본 연구는 수줍음이 친구관계를 매개로 하여 외로움에 영향을 주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수줍음이 친구관계의 질의 어떤 요인들을 매개로 하여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지 세부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수줍은 아동이 친구관계에서 제공받지 못하는 특성들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 여겨져, 남아와 여아의 매개 효과를 각각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외로움을 느끼는 수줍은 아동에게 개입하기 위해, 그리고 수줍은 아동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남아의 수줍음은 친구관계의 질의 사회·정서적 지원을 매개로 하여 외로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여아의 수줍음은 사회·정서적 지원과 교제의 즐거움을 매개로 하여 외로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V.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및 절차

학과연구심의위원회(DRC)의 승인을 받아, 2008년 10월에 서울시에 위치한 공립 초등학교 두 곳에서 5, 6학년 아동 61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중기 아동기 부터는 수줍거나 위축된 행동이 또래집단에서 더 두드러진다는 결과에 따라(Hymel, Rubin, Rowden, & LeMare, 1990), 5, 6학년 아동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은 각 학급의 담임교사에게 배부하여 수업 시간 내에 실시하였다. 수거된 사례 가운데, 결측치가 많거나 참가자와 같은 학급의 친한 친구를 적지 않은 사례는 제외하였다. 또한, 친구 간의 상호성을 확인하기 위하여(Hartup, 1996), 자신이 친한 친구라고 지목한 친구가 좋아하는 친구 세 명 중 한 명으로 자신을 지목하지 않았을 경우 아동의 데이터를 제외하여 총 409명의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학년 별 참가자의 수는 5학년이 286명(69.93%), 6학년이 123명(30.07%)이었다. 대상의 성별은, 남자 아동이 199명(48.66%), 여자 아동이 210명(51.34%)이었다.

2. 측정도구

1) 수줍음 측정도구

수줍음은 Cheek와 Buss(1990)가 개정한 수줍음 척도(Shyness Scale)를 번안하여 사용한 김근영(1994)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수줍음 척도는 총 14문항으로, 사회적 상황에서 느끼는 수줍음 정도를 평정하며, '나는 종종 모임이나 생일 파티에서 불편함을 느낀다',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무언에 대해 말하는 것이 적절한지 잘 생각이 안 난다', '다른 사람의 눈을 보고 말하는 것이 힘들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수줍음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김근영(1994)의 연구에서 수줍음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8로 나타났다.

2) 친구관계의 질 측정도구

친구관계 질을 측정하기 위해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동에게 적용하도록 이은해와 고윤주(1999)가 개발한 친구관계 질 척도를 사용하였다. 친구관계 질 척도는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를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그 친구에 대한 친구관계 질을 평정하도록 한다. 아동이 주로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급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급에서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를 선정하도록 설문지에 명시하였다. 또한 동성 친구와의 우정 관계 유지가 아동기의 발달 과제의 하나이며, 아동은 동성 친구를 더 선호한다는 결과를 따라(Bukowski, Gauze, Hoza, & Newcomb, 1993), 가장 친한 친구 기입은 동성 친구로 제한하였다.

친구관계 질 척도는 친구에 대한 긍정적 기능 6가지와 부정적 기능 2가지, 친구관계에 대한 만족감으로 이루어진다. 총 36개의 자기보고식 문항이며, ‘아주 조금 그렇다(1점)’부터 ‘아주 많이 그렇다(4점)’까지 Likert 4점 척도로 평정한다. 친구의 여섯 가지 긍정적 기능은 친구와 어떤 활동을 함께하는 것과 그때 경험하는 재미와 즐거움에 대한 기대를 포함하는 ‘교제의 즐거움,’필요한 정보와 충고를 해주거나 목적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실제로 도와주는 ‘도움,’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수용적인 분위기를 제공해주고 친구의 욕구나 기분상태를 민감하게 아는 ‘친밀감,’친구와의 지속적인 관계 그리고 친구의 충직함에 대한 믿음인 ‘신뢰,’격려 등과 같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자아개념을 증진시켜주거나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주는 ‘인정,’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편안함과 자신감을 부여해주는 ‘정서적 안정’으로 구성된다.

부정적 기능은 의견의 불일치, 다툼, 또는 친구의 괴롭힘과 같은 불편한 상황에 대한 지각인 ‘갈등,’학교와 놀이 상황을 포함한 일상생활에서 친구와의 경쟁심을 나타내는 ‘경쟁’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관계에 대한 만족감’은 친구에 대한 애정과 친구관계에 대한 만족스러운 느낌을 뜻한다(이은해 · 고윤주, 1999). 하위 영역 중 ‘만족감’은 친구관계의 구체적인 기능을 확인하려는 본 연구의 목적과 맞지 않아 제외하였다.

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축분석과 Varimax 회전 방법을 사용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하위 요인은 정서적 안정/도움/인정, 경쟁, 교제의 즐거움, 신뢰, 갈등의 다섯 요인으로 나뉘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총 23문항으로 이

투어진 다섯 개의 요인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가설의 채택/기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정서적 안정/도움/인정 요인을 사회·정서적 지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은혜와 고윤주(1999)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는 전체 문항에 대해서는 .95, 각 하위척도는 .68~.93까지로 나왔고, 본 연구에서는 전체는 .85, 하위척도는 .77~.89로 산출되었다.

3) 외로움 측정도구

외로움 척도는 Asher, Hymel 그리고 Renshaw(1984)가 개발한 외로움과 사회성 불만족 척도(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Scale)를 신주혜(1999)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6개의 주요 문항과 외로움과 관련이 없는 8개의 필터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집중력을 감안하여 주요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문항에는 ‘나는 학교에서 외롭다고 느낀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부탁할 사람이 없다’ ‘나는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과 잘 지내지 못한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로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졌다. 점수가 높을수록 외로움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2로 높게 나타났다.

5. 자료 분석 방법

자료의 통계분석을 위해서 SPSS 13.0을 사용하여 데이터의 기술통계,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수줍음이 친구관계 질의 하위 요인을 매개로 하여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지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한 매개효과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매개효과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1)예언 변인과 준거 변인의 유의미한 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며 (2)예언 변인이 매개 변인과 유의미한 관계가 성립되어야 하고, (3)매개 변인이 준거 변인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4) 준거 변인에 대한 예언 변인의 영향력은 매개 변인을 투입한 후에 감소해야한다. 이때 예언 변인의 β 계수가 매개 변인 추가 시 유의미 수준에서 무의미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완전 매개, β 계수가 감소하기는 하나 유의미 수준에서 무의미 수준으로

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부분매개 관계가 성립된다고 본다. 또한, 위계적 회귀분석 시 입력(enter)방법을 사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와 상관

수줍음, 친구관계 질의 하위 요인, 외로움의 평균, 표준편차 및 각 변인들의 상관을 알아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수줍음과 외로움은 남녀 각각 .47과 .53의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p < .01$).

수줍음과 친구관계 질의 총점은 남아의 경우에서만 유의한 부적 상관을 가졌다($r = -.19, p < .01$). 하위 요인별로 살펴본 결과, 남녀 모두에서 수줍음은 정서적 안정/도움/인정, 교제의 즐거움, 신뢰 요인과 부적 상관을, 경쟁 요인과는 정적 상관을 가졌다. 남아와 달리, 여아의 수줍음은 갈등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r = .21, p < .01$).

친구관계 질의 총점은 남녀 모두에서 외로움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r = -.29, -.42, p < .01$). 하위 요인별로 살펴본 결과, 남녀 모두에서 정서적 안정/도움/인정, 교제의 즐거움, 신뢰 요인은 외로움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남아의 경우, 갈등과 경쟁 요인은 외로움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으나, 여아의 경우 갈등은 외로움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r = .24, p < .01$).

<표 1> 주요 변인들의 상관 및 평균

변 인	1.	2.	3.	4	5	6	7	8
1. 수줍음		.530**	-.131	-.202**	.149*	-.171*	-.219**	.213**
2. 외로움	.472**		-.415**	.464**	.019	-.429**	-.299**	.236**
3. 친구관계의 질	-.188**	-.292**		.835**	.476**	.702**	.688**	-.063
4. 정서적안정/도움/인정	-.203**	-.344**	.848**		.081	.557**	.498**	-.334**
5. 경쟁	.142*	.055	.327**	-.050		.022	.107	.250**
6. 교제의 즐거움	-.240**	-.180*	.717**	.560**	-.021		.578**	-.197**
7. 신뢰	-.250**	-.241**	.657**	.491**	-.054	.570**		-.203**
8. 갈등	.133	.124	-.158*	-.341**	.151*	-.322**	-.307**	
<i>M</i>	남자 35.05	26.58	59.09	23.37	7.30	13.27	9.58	5.57
	여자 34.40	26.39	62.12	25.92	7.43	13.77	9.84	5.17
<i>SD</i>	남자 8.61	9.85	9.67	6.26	3.41	2.63	2.49	1.70
	여자 8.43	9.93	9.53	5.67	3.45	2.43	2.24	1.37

*p<.05, **p<.01.

Note: 표의 대각선 아래쪽은 남자, 위쪽은 여자임/ 수치는 Pearson 상관계수.

2. 남아의 친구관계 질 하위 요인의 매개효과

(1) 남자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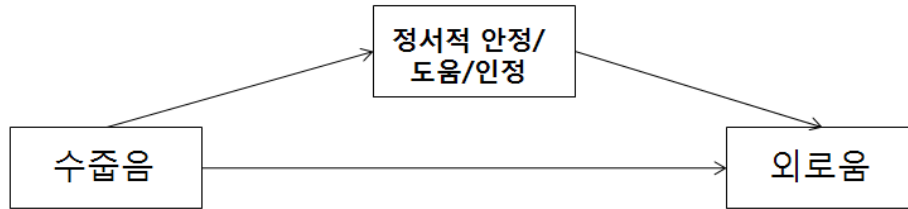
남자 아동에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성립 조건을 확인한 결과<표 1>, 경쟁과 갈등 요인은 수줍음 또는 외로움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두 요인을 제외하고 정서적 안정/도움/인정, 교제의 즐거움, 신뢰의 세 요인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세 하위 요인이 투입되자 이전 회귀식에 비해 수줍음의 β 값이 .47($p<.001$)에서 .43($p<.001$)으로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두 번째 회귀식에서 친구관계 질의 하위 요인 가운데 외로움에 유의하게 영향을 끼친 것은 정서적 안정/도움/인정 요인이었다($\beta=-.30$, $p<.001$). 이는 남자 아동의 경우, 수줍음은 친구관계에서의 정서적 안정/도움/인정 요인을 매개로 하여 외로움에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친구관계 질의 하위 요인들을 통제된 뒤에도 수줍음이 외로움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므로, 친구관계 질의 하위 요인은 수줍음과 외로움을 부분 매개하였다. 수줍음과 외로움의 관계를 친구관계 질의 하위 요인을 매개로 설명하였을 때, 모델의 설명량은 7.3% 증가하였다. 남아의 매개 효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그림 1).

<표 2> 친구관계 질 하위 요인의 매개효과 검증 (남아)

예언변인	$\beta(B)$	$R^2(adj. R^2)$	ΔR^2	F
1. 수줍음	.472(.540)***	.223(.219)		56.413***
2. 수줍음	.426(.488)***			
정서적 안정/도움/인정	-.297(-.468)***	.295(.281)	.073	20.321***
교제의 즐거움	.121(.453)			
신뢰	-.057(-.225)			

*** $p<.001$



[그림 1] 친구관계 질의 매개 효과(남아)

2) 여자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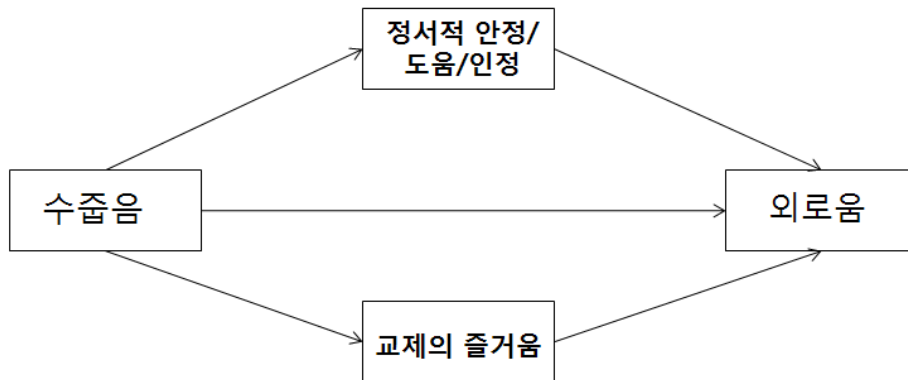
여아의 경우,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조건을 확인한 결과<표 1>, 경쟁은 외로움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므로($r=.02$, ns) 정서적 안정/도움/인정, 교제의 즐거움, 신뢰, 갈등의 네 영역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친구관계 질의 하위 요인이 투입되자 이전 회귀식에 비해 수줍음의 β 값이 .53에서 .45로 감소하였다($p<.001$). 두 번째 회귀식에서 친구관계의 질 가운데 외로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정서적 안정/도움/인정($\beta=-.27$, $p<.001$)과 교제의 즐거움($\beta=-.24$, $p<.05$)이었다. 이는 수줍음이 친구관계에서의 두 요인을 매개로 하여 외로움에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친구관계 질의 하위 요인을 통제된 뒤에도 수줍음이 외로움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므로, 친구관계 질의 하위 요인은 수줍음과 외로움을 부분 매개함을 알 수 있다. 수줍음과 외로움의 관계를 친구관계 질의 하위 요인을 매개로 설명하였을 때, 모델의 설명량은 16.7% 증가하였다. 여아의 매개효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그림 2).

<표 3> 친구관계 질 하위 요인의 매개효과 검증 (여아)

예언변인	$\beta(B)$	$R^2(adj. R^2)$	ΔR^2	F
1. 수줍음	.530(.625)***	.281(.278)		81.274***
2. 수줍음	.447(.527)***			
정서적 안정/도움/인정	-.272(-.476)***			
교제의 즐거움	-.243(-.991)**	.448(.434)	.167	33.109***
신뢰	.078(.348)			
갈등	.018(.128)			

** $p<.05$, *** $p<.001$



[그림 2] 친구관계 질의 매개 효과(여아)

V. 논의와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수줍음이 친구관계 질의 하위 요인을 매개로 하여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지, 또한 남녀 간에 매개 변인의 하위 요인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아의 수줍음은 친구관계 질의 정서적 안정/도움/인정 요인을 부분 매개로 하여 외로움에 영향을 주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조심스럽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표 2>에서 친구관계 질의 하위 요인들이 투입되자 수줍음의 상대적 영향력(β)이 .47에서 .43으로 감소하였지만, 이는 매우 적은 감소량이다. 또한, 매개 변인이 추가되었을 때의 설명력도 7.3%로 크지 않았다. 그러므로 남아의 외로움은 친구관계의 질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지만 그 영향력이 미약하며, 수줍음에 의해 상당부분 설명(22.3%)된다고 할 수 있다.

남아의 친구관계의 질의 총점과 정서적 안정/도움/인정 요인의 평균이 여아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남아가 친구와의 상호작용의 빈도나 강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남아가 일반적으로 친구와의 상호작용이 적었기 때문에, 수줍은 남

아가 친구관계에서 사회·정서적 지원을 덜 받는 것이 외로움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의 남아의 수줍음과 외로움의 높은 상관관계는 남아가 수줍음을 많이 탈수록 또래로부터 인기가 없고(노혜숙, 1997), 외로움을 경험한다는 기존의 결과(Shin, 2006)와 관련성이 있는데, 이는 남아의 수줍음은 여아와 달리 외로움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거나, 1:1의 친구관계 보다는 다른 변인을 매개로 외로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수줍은 여아는 친구관계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잘 느끼지 못하고, 도움과 인정을 적게 받음으로 인해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에 비해 여자는 관계적 자아개념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여(Hussong, 2000; Sedikides & Brewer, 2000) 친구와 정서적 교류를 하고 정서적 지원을 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나 수줍은 아동은 여러 상황에서 경험하는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황자민, 2007), 화가 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친구로 인해 편안함을 느끼거나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얻을 기회가 많지 않을 것이다. 친구관계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잘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수줍은 여아는 외로움을 느끼게 될 것으로 추측된다.

초등학교 저학년에 비해 고학년으로 갈수록 친구란 상호 인정, 수용 및 신뢰감이 커지는 관계로 인식된다(Begelow & La Geipa, 1975). 이와 같은 관점에서,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은 친구가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받아들여 주고 자신의 모습이나 능력을 인정해주기를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수줍은 아동은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자기개념이 부정적이거나 자존감이 낮아서(노혜숙, 1997), 친구관계에서도 자신의 능력이나 장점을 잘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수줍은 여아는 친구로부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여김으로써 외로움을 느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수줍은 여아는 친구관계에서 교제의 즐거움이 낮아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줍은 여아는 친구와 만나서 같이 노는 것이 신나고 재미있지 않아서 외롭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수줍은 여아의 행동 특성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수줍은 아동은 놀이 상황에서 최소한의 활동을 하고, 비참여적이거나 관찰자적 행동을 하며(황자민, 2007), 발화의 수가 적고(Schneider, 1999) 새로운 활동에 선뜻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친구와 공유할 수 있는 활동이 적고 교제할 때에도 즐거움을 많이 느끼지 못하여 외롭다고 느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수줍은 아동의 외로움을 친구관계 질의 하위 요인을 포함하여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아동의 수줍음은 또래와 관련된 변인과 함께 주로 연구되어 왔으며, 국내에서는 친구관계와 같이 연구된 경우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수줍은 아동의 위축적인 행동이 친구와의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신유립, 2007; Rubin, Chen, & Hymel, 1993) 결과적으로 아동이 외로움을 경험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여겨져, 세 변인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수줍음이 친구관계의 질에 선택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구체적으로 친구관계 질의 어떤 하위 요인들이 수줍음과 외로움을 매개하는 지 알아보았고,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수줍음은 대부분의 친구관계 질의 하위 요인들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지만, 수줍음과 외로움의 관계를 매개하는 요인은 구별되었다. 이러한 점은 수줍은 아동의 친구관계에 대한 개입이 어떤 부분에서 더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시사한다. 학령기 아동의 적응에는 부모나 교사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학교 장면에서 수줍은 아동과 친구에 대한 담임교사나 상담교사의 개입이 요구된다. 수줍은 아동에게는 걱정되거나 속상할 때, 화가 나거나 슬플 때 등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때 친구에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서 말하게 하여 위로를 받고 지지받는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정서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고 자신감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신의 장점이나 수행을 찾아 친구에게 표현하여 인정받는 경험을 많이 함으로써,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발달시키고, 자신에 대한 가치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수줍음을 많이 타는 여자 아동이 친구와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을 자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갖도록 격려해줌으로써, 외롭다는 느낌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수줍은 아동의 친구로 하여금 수줍은 아동의 장점을 찾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안심시키고 위로해주도록 함으로써, 친구가 수줍은 아동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수줍어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친구관계에서 개선하도록 도움을 줄 부분도 남녀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두어야 할 것이다. 수줍어 하는 남아와 여아에게 정서적 표현과 자신의 장점과 특기를 발휘하기, 도움을 요청하기 등을 연습해 봄으로써, 친구와 고민을 나누고 지지를 얻으며 자신에 대한 가치감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기존의 초

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에서는 친구와 교제하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 부족하다(최상길, 2005). 따라서, 수줍어하는 여아로 하여금 친구와 어떤 활동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지 등을 생각해보게 하고 실제로 친구와 활동을 같이 하는 시간을 가져봄으로써 즐거움과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친구관계망을 고려하면 수줍은 아동의 친구관계의 질을 좀 더 실제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가장 친한 친구 한 명과의 관계의 질을 측정하였다. 하지만, 몇몇 아동의 경우 서너명의 친구들을 모두 기입한 경우도 있었다. 한명의 친한 친구에게서 얻지 못하는 것들을 다른 친구들을 통해서도 채울 수 있으므로, 아동의 친구들이 아동에게 어떠한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는 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남아의 매개 모형에서 추가된 설명량은 7.3%로 그리 크지 않았다. 이는 남아의 수줍음이 다른 변인을 매개로 해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외로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는 수줍음과 외로움의 관계에 있어 다른 매개 변인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남아의 수줍음이 친구관계의 질이 아닌 다른 매개 변인을 통해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김근영(1994). 자기 검색과 수줍음이 또래 인기에 미치는 영향: 초기 청소년기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애(2003). 수줍음이 청소년의 친구관계만족 및 친구관계망에 미치는 영향: 자아개념을 매개 변인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혜숙(1997). 수줍음, 자기개념 및 또래인기의 관계: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도현심(1996). 아동의 수줍음, 대인적응성 및 또래수용성과 외로움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제17권 제2호, pp. 33-45.
- 도현심·박성연(1992). 한국 아동의 수줍음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0권 제1호, pp 325-338.
- 신유림(2007).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위축성과 친구관계. 아동학회지, 제28권 제5호, pp. 193-207.
- 신주혜(1998). 단짝친구관계와 학교생활적응: 초등학생4학년과 중학생2학년을 대상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현미(1999). 아동의 외로움과 형제 및 친구 관계의 질적 특성의 관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미경(1998). 아동의 또래수용과 우정관계의 질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예진(2008). 아동의 또래 괴롭힘 피해와 외로움의 관계에 대한 친구 관계 질 및 대처 전략의 중재 효과.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혜·고윤주(1999). 학령기 아동을 위한 친구 관계 질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제20권 제2호, pp. 225-242.
- 이은혜·김정윤·오원정(2001). 아동의 또래지위 및 친구관계와 학교적응의 관계. 아동학회지, 제22권 제1호, pp. 1-18.
- 임수경·이형실(2007).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제19권 제3호, pp. 169-183.
- 정유진·김광웅(2006). 또래관계 및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가 아동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8권 제1호, pp. 217-232.

- 최상길(2005). 수줍음 극복 훈련 프로그램이 아동의 자기 존중감 및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자민(2007). 놀이 중심의 자기표현 훈련 프로그램이 수줍음 아동의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학령 전 아동을 대상으로.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sendorpf, J. B.(1986). Shyness in middle and late childhood. In W. H. Jones, J. M. Cheek, & S. R. Briggs(Eds.), *Shyness: Perspectives on research and treatment*(pp. 91-103). New York: Plenum Press.
- Asher, S. R., Hymel, S., & Renshaw, P. D.(1984). Loneliness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Vol. 55*, pp. 1456-64.
- Asher, S. R., & Paquette, J. A.(2003). Loneliness and peer relations in childhood,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Vol. 12 No.3*, pp. 75-78.
-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pp. 1173-82.
- Bauminger, N., & Kasari, C.(2003). Loneliness and friendship in high-functioning children with autism. *Child Development, Vol. 71 No.2*, pp. 447-456.
- Begelow, B. J., & La Geipa, J. J.(1975). Children's written descriptions of friendship: A multidimension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11*, pp. 857-858.
- Burgess, K. B., Wojslawowicz, J. D., Rubin, K. H., Rose-Krasnor, L., & Booth-LaForce, C.(2006). *Child Development, Vol. 77 No.2*, pp. 371-383.
- Bukowski, W. M., Gauze, C., Hoza, B., & Newcomb, A. F.(1993). Differences and consistency between same-sex and other-sex peer relationships during early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9 No.2*, pp. 255-263.
- Bukowski, W. M. and Hoza, B.(1989). Popularity and friendship: Issues in theory, measurement and outcome. In T. J. Berndt, & G. W. Ladd(Eds.),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pp. 15-45). New York: Wiley.
- Bukowski, W. M., Hoza, B., & Boivin, M.(1994). Measuring friendship quality during pre- and early adolescence: The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 properties of the friendship qualities scal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Vol. 11, pp. 471-484.
- Berndt, T. J.(2002). Friendship quality and social development.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Vol. 11, pp. 7-10.
- Berndt, T. J., & Perry, T. B.(1986). Children's perceptions of friendships as supportive relation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2 No.5, pp. 640-648.
- Cheek, J. M. and Melchoir, L. A.(1990). Shyness, self-esteem, and self-consciousness. In H. Leitenberg(Ed.), *Handbook of social and evaluation anxiety*(pp. 47-82). New York: Plenum Press.
- Chen, X., He, Y., Oliveira, A. D., Coco, A. L., Zappulla, C., & Kaspar, V. et al.(2004). Loneliness and social adaptation in Brazilian, Canadian, Chinese and Italian Children: A multi-national comparative stud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Vol. 45, pp. 1373-84.
- Chen, X., Rubin, K. H., & Sun, Y.(1992). Social reputation and peer relationships in Chinese and Canadian children: A cross-cultural study. *Child Development*, Vol. 63, pp. 1336-43.
- Miziad, H., Boudreault, M., Thivierge, J., Caperaa, P., & Cote, R.(1984). Infant temperament: SES and gender differences and reliability of measurement in a large Quebec sample. *Merril Palmer Quarterly*, Vol. 30, pp. 213-216.
- Crick, N. R., & Nelson, D. A.(2002). Relational and physical victimization within friendships: Nobody told me there' d be friends like thes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Vol. 30, pp. 599-607.
- Dill, J. C. and Anderson, C.(1999). Loneliness, shyness, and depression: The etiology and interrelationships of everyday problems in living. In T. Joiner & J. C. Coyne(Eds.), *The interactional nature of depression*(pp. 93-12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Fordham, K., & Stevenson-Hinde, J.(1999). Shyness, friendship quality, and adjustment during middle childhood.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Vol. 40 No.5, pp. 757-768.

- Hartup, W. W.(1996).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s and their developmental significance. *Child Development, Vol. 67*, pp. 1-13.
- Heinrich, L. M., & Gullone, E.(2006). The clinical significance of loneliness: A literature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Vol. 26*, pp. 695-718.
- Hussong, A. M.(2000). Distinguishing mean and structural sex differences in adolescent friendship quality.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Vol. 17 No.2*, pp. 223-244.
- Hymel, S., Rubin, K., Rowden, L., & LeMare, L.(1990).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Longitudinal prediction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from middle to lat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Vol. 61 No.6*, pp. 2004-21.
- Jackson, T., Fritch, A., Nagasaka, T., & Gunderson, J.(2002). Towards explaining the association between shyness and loneliness: A path analysis with American college student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Vol. 30 No.3*, pp. 263-270.
- Jackson, T., Soderlind, A., & Weiss, K. E.(2000). Personality traits and quality of relationships as predictors of future loneliness among American college student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Vol. 28*, pp. 463-470.
- Jones, W. H., Briggs, S. R., & Smith, T. G.(1986). Shyness: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No.3*, pp. 629-639.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Vol. 67*, pp. 1103-18.
- Parker, J. G., & Asher, S. R.(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Links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9 No.4*, pp. 611-621.
- Peplau, L. A. and Perlman, D.(1982). Perspectives on loneliness. In L. A. Peplau & D. Perlman(Eds.), *Loneliness: A source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 and therapy*(pp. 1-18). New York: Wiley.
- Runbin, K. H., Chen, X., & Hymel, S.(1993). The socio-emotional characteristics of extremely aggressive and extremely withdrawn children. *Merrill-Palmer Quarterly*, Vol. 39, pp. 518-534.
- Rubin, K. H., Wojslawowicz, J. C., Rose-Krasnor, L., Booth-LaForce, C., & Burgess, K. B.(2006). The best friendships of shy/withdrawn children: Prevalence, stability, and relationship qualit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Vol. 34 No.2, pp. 143-157.
- Schmidt-Denter, U.(1988). *Soziale entwicklung*. Munchen-Weinheim: PVU.
- Schneider, B. H.(1999). A multimethod exploration of the friendships of children considered socially withdrawn by their school peer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Vol. 27 No.2, pp. 115-123.
- Schwartzl, D., Farver, J. M., Chang, L., & Lee-Shin, Y.(2002). Victimization in South Korea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Vol. 30 No.2, pp. 113-125.
- Sedikides, C. and Brewer, M. B.(2000). *Individual self, relational self, collective self*. Philadelphia: Psychology Press.
- Shin, Y.(2007). Peer relationships, social behaviours, academic performance and loneliness in Korean primary school children.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Vol. 28 No.2, pp. 220-236.
- Sullivan, H. S.(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Norton.
- Weiss, R. S.(1973). *Loneliness: The experience of emotional and social isolation*. Cambridge, Mass: MIT Press.
- Younger, A., & Daniels, T.(1992). Children's peer nominations for withdrawal: What are the reasons for their choice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8 No.5, pp. 955-960.

ABSTRACT

The Mediating Effect of Friendship Quality Sub-Factors on the Relationship of Shyness and Loneliness : With a Focus on 5th, 6th Grade Boys and Girls

Hwang, Jung-Eun* · Lee, Ki-Hak**

This study tested the mediating role of friendship quality sub-factors on the relationship of shyness and loneliness. Data from four hundred and nine 5th and 6th grade students(boys = 199) were analyzed.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emotional stableness/help/recognition factor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boys' shyness and loneliness. The emotional stableness/help/recognition and pleasure factors functioned as significant partial mediators that accounted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girls' shyness and loneliness. The results suggest that sub-factors of friendship quality need to be taken into account for us to better understand shyness and loneliness, and that different interventions according to gender are needed.

Key Words : shyness, loneliness, friendship quality

투고일 : 12월 15일, 심사일 : 3월 18일, 심사완료일 : 3월 27일

* Yonsei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Yonsei University, khlee2445@yonsei.ac.kr

